

4대종교 문화체험 익산여행 '인기'

종교 문화 유산·치유 콘텐츠 결합 관광 6월 1일까지 상반기 여행 8회차 운영... 예약 조기 마감

'4대종교 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종교 문화 유산에 치유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을 선보이며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한 4대종교 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신청 개시 전부터 문의가 쇄도한데 이어 3주 만에 상반기 예약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특히 올해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입소문을 타고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여행을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12~13일 운영하는 2회차 여행에는 경기도 오산 미군 부대의 미국인 50여 명이 신청해 익산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예정이다.

지난해 참가한 관광객이 부대에 매력적인 여행상품으로 소개하며 이번 관광이 추진돼 다이로운 익산여행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상반기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운영하며 총 8회에 걸쳐 15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이로운 익산여행 참여자들은 원불교 명상 및 해설 관람과 함께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백제의상 차용 후 다도체험 등을 경험하게 된다.



4대종교 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종교 문화 유산에 치유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을 선보이며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아가페정원, 두동교회, 나비위성당을 거쳐 고스타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1박 2일 동안 생동하는 봄을 느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

시 관계자는 "단개한 벚꽃과 함께 시작한 이

번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다시 오고 싶은 익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통 옷칠 목공예 계승·작가 발굴

남원시, 12~14일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출품작 접수

남원시와 남원목공예협회가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27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 출품작 접수를 진행한다.

대회는 전통 옷칠 목공예의 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뛰어난 옷칠 목공예 작가를 발굴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본 대회는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접수 대상은 옷칠 목공예품·같이 공예품 2분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출품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남원시 시청로 60)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에 출품하면 된다.

올해 27회째를 맞이하는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공모전이며, 시상 규모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 은상(문화재청장상) 3점, 동상(전북특별



자치도지사상) 4점, 장려상(남원시장상/시의회의장상) 7점, 입선(주관단체장상) 20점으로 총 37점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오는 2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본격 나선다

전주문화재단, 19일까지 창작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9일까지 청년문화기획자 창작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부터 그룹 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지원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팔복예술대학의 기획자 수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기획 실무를 익히는

기획자 아카데미, 분야별 지역 선배 기획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노하우와 현장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룹 멘토링, 관내의 현장 탐구를 통해 타 지역 기획자와의 교류가 이뤄지는 워크숍인 기획자 캠프 등으로 구성됐다.

하반기에는 신청자에 한 해 재단 및 유관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현장실무경험지원과 팀 별 지원금 지급을 통해 프로젝트 실현까지 지원한다. 또한 팔복예술공간 내 공간을

커뮤니티 및 기획 플랫폼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청년문화기획자들이 다양한 기획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1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며, 지역 문화 및 문화예술 기획에 관심 있는 만 19세~만 39세 전주에 연고를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젝트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기획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문예진흥팀(063-211-9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김성기 기자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교양총서 제5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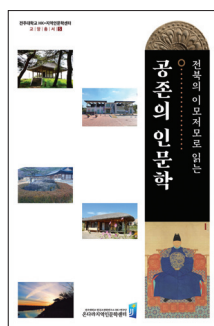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교양총서 제5권 '전북의 이모저모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양총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문화와 인물 자산을 발굴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은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전북의 이모저모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은 전북지역에 숨어 있던 사

람과 삶을 발굴하고 엮어서 다시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저자로는 홍성덕, 김건우, 이용옥, 서정화(이상 전주대학교), 백진우(서강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도민들이 이 책을 통해 전북의 문화를 더 가까이하고, 숨어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추후 발간될 교양총서 제6권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출범한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전북자치도도의 대표적인 인문학 대중화 센터로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화를 실시, 이를 토대로 교양총서를 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공예 장인학교' 기초반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9일까지 '2024 한국공예 장인학교' 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예 장인학교는 '손의 도시 전주'의 수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공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과 1대1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목은 △색지(김해미자 전북무형문화재 색지장) △지승(김선에 전북무형문화재 지승장) △단선 부채(방화선 전북무형문화재 선

장장) △목조각(김종연 전북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매듭(김선사 전북무형문화재 매듭장) 등 모두 5개 분야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1·2학기로 나눠 모두 26회에 걸쳐 이뤄지며, 각 과목당 5명의 교육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금 30만원은 교육의 90% 이상을 이수할 경우 일부 반환되며, 기초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2026년에 심화반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